

#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 결산자료

- 순서 -

- I. 개요
- II. 성과
- III. 참가게스트 및 프레스
- IV. 이벤트 및 행사
- V. 시상
- VI.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 결산
- VII. 아시아영화펀드(ACF) 결산
- VIII. 아시안필름마켓 결산

# 1. 개요

## 1. 기본 개요

- 기 간 : 2010년 10월 7일~15일
- 67개국 306편 상영
- 상영관 : 5개 극장 36개관(총 유효좌석 수 232,851석)  
해운대 : 야외상영장(수영만요트경기장내), 메가박스(해운대점), CGV(센텀시티점),  
롯데시네마(센텀시티점)  
남포동 : 대영시네마

2. 총 관객수 : 182,046명(좌석 점유율: 78%)

## 3. 월드+인터내셔널 프리미어

- 월드 프리미어 : 101편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 52편

## 4. 아시안필름마켓

- 세일즈 오피스 : 총 26개국 108개 업체, 51개 오피스
- 총 스크리닝 수 : 마켓 스크리닝 39편 47회(마켓 프리미어 22편)  
/온라인 스크리닝 186편, 240명이 1652회 관람  
(10월 10일 ~ 10월 13일 4일동안 집계현황)

## 5.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

- 참가자 : 16개국 24명
- 교장 :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 교감 : 문승욱  
연출지도교수 : 오기가미 나오코 / 촬영지도교수 : 김형구

## 6. 아시아영화펀드(ACF)

- 인큐베이팅펀드 AFA 졸업생 지원 신설
- AND 배급지원펀드 지원 확대

## II. 성과

### 1. 내실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룬 한 해

초청작 편수가 지난해 대비 50편 이상 줄고, 총 좌석수도 5만석 이상 줄었지만 관객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호응도가 더 높아졌으며, 영화제 운영도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2.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 호응

153편의 월드, 인터내셔널 프리미어작을 포함 수준 높은 신작들을 대거 소개함으로써 세계 영화의 흐름을 온전히 독자적인 시각으로 소개하고, 참신한 기획력이 돋보이는 특별전 또한 호평을 받았다.

### 3. 마켓의 주목할만한 성장

온라인 스크리닝 론칭, EAVE 워크숍의 성공적인 진행 등 역대 어느 해보다 활발한 거래로 마켓의 주목할만한 성장을 이끌어 냈다.

### 4. 거물급 영화인들의 대거 참가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 제고

줄리엣 비노쉬, 아이쉬와리아 라이, 올리버 스톤,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허우샤오시엔, 윌렘 데포, 카를로스 사우라 등 거물급 영화인과 티에리 프레모 칸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세계 주요 영화제 집행위원장들의 대거 참여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

### 5. 담론과 비평의 활성화

전세계 주요 언론매체와 비평지 등에서 경쟁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취재하였고, 리뷰의 대폭 증가로 과거에 비해 영화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III. 참가게스트 및 프레스

- 총 참석인원 9,367명
  - 국내 3,784명
  - 해외 906명
  - 시네필 1,651명
  - 마켓 789명
  - 프레스 2,237명

마켓의 경우, 단순 참가(방문)자 제외한 배지 발급자에 한함

※ 아시안필름마켓 세일즈오피스 : 총 26개국 108개 업체, 51개 오피스

### IV. 이벤트 및 행사

- 마스터 클래스 4회
- 핸드 프린팅 6회
- 세미나 10회 (PIFF 아카데미)
- 오픈 토크 3회
- 야외무대 인사 14회
- 아주담담 8회
- 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이야기 2회
- 시네마투게더 8팀
- 씨네콘서트 4회
- 관객과의 대화(GV) : 193회
- 기자회견 총 15회
- 개별인터뷰 총 177회

## V. 시상

### 1. 뉴 커런츠상

수상작 : <무산일기> 박정범 (한국)

#### 와다에미 (심사위원장)

이 영화는 훌륭한 시나리오와 감독의 연출력, 촬영을 바탕으로, 영화가 오늘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관객에게 묻고 있다. 나는 이 영화 속에서, 흰 개가 죽었다고 여겨지는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 없다.

훌륭한 영화라는 것은 장면을 관객에게 각인시키고, 관객은 그것을 받아들여 현재의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 김윤진

이 탈북자에 관한 이야기는 관객을 사로잡는다. 한 남자가 너무나도 다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잔혹하고도 고달픈 내용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하얀 개처럼 그 또한 소외되어 흘러가는 한 마리의 길 잃은 개와 같다. 이 영화의 놀라운 마지막은 이 실화를 더욱더 특별하게 만든다.

#### 무랄리 나이르

현재의 사회적, 정치적인 현실이 매우 흥미롭고 도전적으로 잘 반영되어 있다. 지금 우리의 현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어 뉴커런츠 상의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 양귀매

13편의 영화를 모두 보고 나서는 '무산일기'의 내용이 여전히 내 머리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그 결말의 구성과 내용에 감탄을 머금지 못하고 있다.

#### 크리스토프 티레히테

맞춰 나가기 위해 그의 진실된 온전함을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에 동화되고 흡수되어야만 하는 유배된 인물이 잘 표현되고 있다.

수상작 : <파수꾼> 윤성현 (한국)

와다에미 (심사위원장)

세 청년의 인간군상에 대한 드라마가 잘 짜여진 컷 분할과 편집에 의해 잘 표현되어 있다.

과연 야구공은 이후에 어디로 던져지는가,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아야만 한다.

김윤진

잘 구성된 인물 중심의 영화이다. 등장하는 세 명의 소년들을 주시하게 만든다. 스토리 텔링과 뛰어난 연기력이 잘 합쳐진 이 영화는 감독의 가능성이 매우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잘 짜여져 매우 부드럽고 흥미롭게 연결된 구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모든 심사위원들이 좋아하는 작품이었다.

양귀매

전반적으로 영화적 표현이 너무 좋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게 된 영화이다.

크리스토프 티레히테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 텔링이다. 세 소년의 관계는 천천히 드러나지만, 그것의 신비적인 요소는 잃지는 않고 있다. 젊은 배우들의 연기는 놀랍도록 설득력 있다. 여러 겹의 층들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려는 아버지의 시도로 서서히 베일이 벗겨진다.

\* 뉴 커런츠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 와다 에미

- 심사위원 : 김윤진, 무랄리 나이르, 양귀매, 크리스토프 테레히테

## 2. 플래시 포워드상

### 수상작 : <순수소녀> 리자 랑세트 (스웨덴)

젊은 여배우의 힘차고 설득력 있는 놀라운 연기에 힘입어, 위험한 동시에 용감하고, 에너지로 넘쳐흐르는 이야기를 전달한 리자 랑세트의 '순수소녀'에 플래시 포워드 상을 수상한다.

### 특별 언급 : <시행착오> 마렉 레츠키 (폴란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전형적인 이야기를 생생한 디테일과 우아한 순간들의 포착으로 표현한 마렉 레츠키의 '시행 착오'를 특별언급 하고자 한다.

\* 플래시 포워드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 존 쿠퍼

- 심사위원 : 알렉세이 포포그렙스키, 야스밀라 즈바니치, 이광모, 토마스 엘제서

## 3. 선재상

### 수상작 : <부서진 밤> 양효주 (한국)

지적인 시나리오와 특색 있는 촬영으로 가혹한 현실을 장르의 틀 안에서 풀어내었다.

### 수상작 : <숨 들이쉬기> 에드문드 여 (말레이시아/일본)

최고의 아시아 단편 영화에 돌아가는 선재상은 강력한 캐릭터를 통해 단순한 이야기를 전하는, 보여지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에드문드 여의 '숨 들이쉬기' 가 수상한다.

### 특별 언급 : <수선화> 박종철(한국) / <여행> 임경동(한국)

개인적인 주제로 뛰어난 연출력을 선보였다.

\* 선재상 심사위원 : 김명준(촬영감독), 레미 본옴므, 우밍진

#### 4. 피프메세나상

**수상작 : <종로의 기적> 이혁상(한국)**

'종로의 기적'은 한국 LGBT 공동체의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훌륭한 작가성과 스토리 텔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혁상 감독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들려주는 그들의 사적인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연민과 유머를 느끼고, 그들의 투쟁에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수상작 : <새로 지은 성> 귀흥치(중국)**

이 영화는 일상의 극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물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경외심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 다큐멘터리 부문 피프 메세나 상을 수상한다. 신인감독 귀흥치의 능숙한 연출과 편집이 돋보이는 영화.

\* 피프메세나상 심사위원 : 김명준(미디액트 소장), 리티 판, 셴 파넬

#### 5.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FIPRECI)

**수상작 : <무산일기> 박정범 (한국)**

제 15회 부산국제영화제 FIPRESCI 상을 영화적 가치와 현대의 정치적 이슈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며 우리 시대의 예술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생생한 증인이 되는 '무산일기' 에 수여한다.

\*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 심사위원

남완석, 미하이 풀거, 아키코 고바리, 알린 타시안, 우마 다 쿤하



## 6. 아시아 영화진흥기구상(NETPAC)

수상작 : <두만강> 장률 (한국)

남북의 정치적 분열로 인하여 폐허가 된 두만강 양현의 마을 사람들과 무고한 어린 아이들의 삶을 감성적으로 드러내는 내러티브의 영화이다.

\* 아시아 영화진흥기구상 심사위원 : 네스터 오 하딘, 마르틴 테루안느, 문관규

## 7. KNN 영화상(관객상)

수상작 : <맹인영화관> 루양 (중국)

## VI.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 결산

1. 기간 : 2010 년 9 월 30 일~10 월 16 일 (17 일간)
2. 장소 : 아르피나, 시네마테크 부산, 동서대학교 녹음실,  
버드 클래식 녹음실 및 해운대 로케이션
3. 참가자 : 16 개국 24 명
4. 지도교수진
  - 교장 :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 교감 : 문승욱
  - 연출 지도교수 : 오기가미 나오코
  - 촬영 지도교수 : 김형구
5. 프로그램
  - ① 단편영화제작 및 상영
    - <준 앤 웬디> Joon & Wendy / HD / 10min
    - <이그노런스> Ignorance / HD / 10min
  - ② 전공워크숍 총 3 회
  - ③ 멘토링 총 12 회(총 24 명 4 대 1 그룹멘토링 진행)
  - ④ 교수진 스크리닝 3 회
  - ⑤ 교장 마스터클래스 1 회
  - ⑥ 영화제 세미나 참가  
(마크 리 마스터클래스, 카를로스 사우라 마스터클래스, EAVE Ties That Bind)
6. 장학금 수여
  - ① 동서대학교에서 2 명에 5,000,000 원 지원
  - ② 테크니컬러 타일랜드에서 1명에 후반작업 지원

## VII. 아시아영화펀드(ACF) 결산

### 1. 아시아영화펀드(ACF)의 지원 확대

#### - 인큐베이팅펀드 AFA 졸업생 지원 신설 운영

부산국제영화제의 영화인 양성 프로그램인 아시아 영화 아카데미(Asian Film Academy, 이하 AFA)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며, 우수 프로젝트 1편을 선정해 1천 만원의 개발 지원금을 제공

#### - AND 배급지원펀드 지원 확대

사단법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DCNA:Digital Contents Network Association) 의 후원으로 다큐멘터리 AND 배급지원펀드는 기존 아시아 2편, 한국 1편에서 올해에는 아시아 2편, 한국 2편, 총 4편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되는 다큐멘터리 중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작품을 선정하여 국내 배급 지원

### 2. AND 배급지원펀드 수상작

#### ① 아시아 다큐멘터리 (1편)

- 열정 | 비암바 사카 | 몽골

#### ② 한국 다큐멘터리 (2편)

- 꿈의 공장 | 김성균

- 오월愛 | 김태일

### 3. 제15회 영화제 상영 : ACF 지원작 중 총 16편 상영

(장편 극영화)

떠도는 삶 | 응유엔 판쿠앙빈 | 베트남

사랑의 중독 | 류 하오 | 중국

여름이 없었던 해 | 탄추이무이 | 말레이시아

영원 | 시바로즈 콩사쿤 | 태국

처녀 염소 | 무랄리 나이르 | 인도

평범한 날들 | 이난 | 한국

혜화, 동 | 민용근 | 한국

(다큐멘터리)

가면놀이 | 문정현 | 한국

새로 지은 성 | 귀흥치 | 중국

아민 | 샤힌 파르하미 | 이란

아이들 | 류미례 | 한국

야만의 무기 | 이강길 | 한국

열정 | 비암바 사카 | 몽골

오월애 | 김태일 | 한국

인살라 풋볼 | 아쉬빈 쿠마르 | 인도

첫사랑 - 1989, 수미다의 기억 | 박정숙 | 한국

## Ⅷ. 아시안필름마켓 결산

- 세일즈 오피스 : 총 26개국 108개 업체, 51개 오피스
- 총 스크리닝 수 : 10월10일 ~ 13일까지 4일간 10개국 39편 47회 상영  
(마켓 프리미어 22편)
- 온라인 스크리닝 : 186편의 영화 등록, 마켓 기간 4일동안 240명이 1652회 관람

### PPP

- 2010년 프로젝트 수 : 총 27편
- 미팅 결과 : 공식 미팅 횟수 총 400여 회

### BIFCOM

- 미팅 결과 : 공식 미팅 75회 포함 총 500여 회

## 시상결과

### PPP 프로젝트 시상

- 부산상 : 오기가미 나오코 <버섯 수박> / 일본
- 코닥상 : 이재용 <폴링인러브>(가제) / 한국
- 예테보리 영화제 펀드: 물리 수리아 <비범한 나> / 인도네시아
- CJ엔터테인먼트 어워드: 린 슈유 <별이 빛나는 밤>(가제) / 대만
- 롯데 어워드: 변혁 <베이비 블루> / 변혁
- 팬스타크루즈 어워드 : 아노차 스위차콘퐁 <화이트 룸> / 태국,일본,영국
- 한국콘텐츠진흥원상 : 모하메드 알-다라지 <기차역> / 이라크,영국,네덜란드